

무색투명 PC BPA, 용출 “우려”

FDA, 생산기업에 사용량 감축 권고 ... 사용방법 따라 검출 가능성

BPA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미국 FDA(식품의약청)이 BPA(Bisphenol-A) 사용을 줄이도록 관련기업들에게 권고함에 따라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2월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생활용품 중 BPA가 녹아나올 수 있는 제품은 젓병처럼 무색 투명한 PC(Polycarbonate) 소재의 플라스틱 용기로 반투명한 밀폐용기 등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PA는 뇌신경에 작용해 영유아에서 과잉행동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물질로 국내 기준은 유럽과 같은 0.6ppm이하이다.

일본은 2.5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PC 제품은 대체로 BPA가 녹아나오지 않는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이 2008년 유통 중인 젓병을 수거 검사한 결과 전부 BPA가 검출되지 않았다.

시중 제품은 BPA에 대해 대체로 안전하지만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BPA가 녹아나올 수 있으므로 젓병은 끓는 물로 소독하고 식혀서 사용해야 한다.

또 표면에 흠집이 생긴 경우에도 BPA가 용출될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솔로 세척하고 흠집 난 제품은 사용하지 말고 버려야 한다.

식약청은 “시중 유통되고 있는 PC 용기는 대체로 BPA가 검출되지 않지만 사용방법에 따라 BPA가 녹아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C 사용상 주의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 용기포장 정보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04>